

끌어안고 싶은, 그러나 씻어내고 싶은
세월호에 대한 진도사람들의 기억

이 도 정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수료)

1.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맹골수로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고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476명의 탑승객 중 3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죽거나 실종된 참사는 하루아침에 사고 현장이 된 진도 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세월호 사고를 접했고 그들의 일상의 공간이 비일상으로 변하는 상황을 겪었다. 나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5달이 지난 2014년 9월에 진도의 한 마을로 현지조사를 가게 되었다. 비록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있던 문제였지만, 세월호는 내게 현지조사 시작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진도에서 현지조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연구지를 진도로 잡은 것에 대해 주변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외지인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섬 안 사람들의 인심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우려는 기우였고, 오히려 내가 연구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느꼈던 것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거리감이었다. 2015년 2월 말 다시 서울로 돌아온 내게 사람들이 물었던 것은 진도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내가 있던 마을에서 있었던 거리감에 당혹해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는 완전히 진도 주민이 아니지만 진도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위치에서 진도 사람들이 겪은 세월호의 경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진도 사람들이 겪은 세월호를 이해하기 위해 나는 크게 두 가지 대립지점을 상정하였다. 우선 진도 바깥에서 세월호 사고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진도를 보는 시선과 진도 사람들의 대비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진도 사람들’과 내가 머물던 마을 사람들의 대비이다. 이는 각각 세월호를 바라보는 다른 결을 자아내며, 세월호를 이해하는 진도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순서로, 내가 만나고 이야기했던 진도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세월호를 바라보는 진도 사람들의 기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글을 통해 세월호 1주기가 지난 시점에서 진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2. 추모의 길과 “슬픔의 섬” 진도

진도를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은 세월호를 추모하며 사람들이 걷는 길에서 잘 드러난다. 세월호 사고가 있는 뒤, 내가 진도를 들렀던 것은 2달이 지난 2014년 6월 초순이었다. 당시 나는 진도를 연구하는 두 선생님을 따라 진도를 들렀다. 우리는 일정차이로 따로 출발하여 진도읍에서 만났다. 나는 서울에서 첫차를 타고 출발하여 정오가 조금 지나 진도에 도착했다. 당시의 진도는 이전에 내가 들렀던 진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를 명확히 보여준 것은 진도에 들어가면서 보이기 시작한 노란 리본이었다. 가로수마다 묶인 여러 노란 리본을 보면서, 서울을 출발할 때와는 다른 무거움이 가슴에 얹혔다. 선생님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는 대화에서 세월호 이야기는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선생님들 일정에 맞춰 뽀뽀하게 움직이면서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묵고 있던 진도체육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은 빼놓지 않았다. 비록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차를 타고 멀리서 체육관 입구를 살펴보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다음날에는 점심을 먹고 팽목항을 들렀다. 읍내에서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는 가로수마다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20km 가량 되는 도로 변에 빠짐없이 달린 노란 리본 다발을 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겼다. 팽목항 입구 주차장에 도착해 우리는 다시 방파제를 향해 700m 가량의 길을 걸어갔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당연하다는 듯 같은 목적지로 걸어갔다. 주변을 다니는 순찰차와 돌씩 짝지어 다니는 경찰의 모습, 한전에서 가져온 임시 발전차량,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다는 텐트촌, 길을 따라 앞뒤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던 곳은 넓은 부지에 20인용 텐트 등이 수십 동이 들어서 있었다. 그 주변에 나온 사람 없이, 넓은 공터를 가득 채운 텐트는 번잡한 하지만 쓸쓸해 보였다.

사람들과 걷다보니 자연스럽게 팽목항 방파제에 도착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방파제 위를 걸었다. 방파제 위에는 불교, 천주교에서 기도하기 위해 만든 천막이 있었고, 그 근처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으며, 무속인이 만든 시설이 그 옆에 있었고, 방파제 끝에는 원불교에서 만든 팻말이 보였다. 방파제 옆 난간에는 살 하나하나에 노란 리본이 빼곡히 묶여 있었다. 난간 위쪽으로는 풍경이 달려 있었는데, 풍경마다 죽은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별 모양 판지 위에 적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십 개의 풍경은 딸랑거렸고, 그렇지 않아도 울컥한 마음에 종소리는 마치 아직 찬 바다에 남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방파제 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걷고 있었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없이 걷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사진을 찍는 사람, 말없이 혼자 돌아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난간에 기대서 세월호의 흔적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먼 바다를 보는 사람, 사이사이로 걸어 다니는 경찰의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방파제 위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기도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방파제 끝에 닿자, 돌아오는 해경 경비선을 보며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다. “세월호가 어디 있지?” “여기서는 안보여. 맹골 수로는 저 멀리 있대” 멀리 보이는 배가 혹시 지금 구조를 하고 돌아오는 배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 경비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다. 이게 내가 처음 들었던 팽목항의 모습이었고, 이는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추모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처음 팽목항에 들렀던 작년 7월 이후, 내가 팽목항에 들린 횡수만 해도 8번 이상이었다. 누군가 외지에서 진도를 방문하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면 누구나 나처럼 그 길을 비슷하게 밟아갔다. 항상 이들은 진도읍에 들렀고, 가볍게 읍에서 식사를 했으며, 읍에서 가까운 진도체육관의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노란 리본이 줄줄이 늘어선 도로를 따라 팽목항을 향한다. 팽목항에 도착하여 함께 방파제로 가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고, 방파제 위에서는 함께 온 일행과 떨어져 방파제 위를 걸으며, 혼자만의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안타까움과 아픈 가슴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다시 차에 타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진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팽목항을 거치는 것은 마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방식이 되었고 그 길은 그들에 대한 추모의 길이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팽목항 주변은 점점 쓸쓸하게 변해갔다. 방파제 위를 걷는 사람 수는 점점 줄었고, 주변에 많던 천막들도 그 수가 점차 줄었다. 풍경과 아이들의 이름을 달아 무사귀환을 빌던 별들도 사라졌다. 삼엄해 보였던 경찰도 점점 줄어들었다. 바쁘게 오가던 해경 경비정은 더 이상 방파제 주변에서 보이지 않았고, 팽목항에는 다시 조도를 향하는 농협 여객선이 오간다. 줄어든 노란 리본의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노란 현수막이었으며, 그 뒤로는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는 현수막으로 변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노란 리본 모양의 구조물이 방파제 위에 생겼고, 대신 기도를 위해 세워둔 천막은 사라졌다. 이처럼 팽목항의 모습은 계속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팽목항은 진도를 찾는 외지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걷는 추모의 길은 진도에 대한 당시 이들의 인상을 보여준다.

슬픔의 섬, 죽음의 섬, 비탄의 섬, 애도의 섬... 밖에서 보는 사람도 가슴이 바위에 눌리는 느낌인데, 이렇게 불리는 섬에서 일상을 사는 분들은 오죽할까? 소중한 삶의 터가 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슬픔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인 온갖 모순과 부조리의 악취가... 이렇게 멀리서도 견디기 힘들데, 바로 옆에서 감당해야할 진도 분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Y 선생님의 메일에서)

이 편지는 나와 함께 진도를 답사했던 선생님이 세월호 사고가 있던지 얼마 되지 않아 보낸 글이다. 세월호 사고 직후 바깥에서 바라보는 진도의 이미지는 명확했다. 진도는 “슬픔의 섬”이고 “죽음의 섬”이자 “애도의 섬”이었다. 나에게 처음 진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써볼 것을 권했던 선배들도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처럼 “슬픈 진도”로 제목을 권했던 것도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슬픔의 섬에 들른 외부인의 의례적 행사는 추모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도에 들르는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머무는 진도읍의 진도체육관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팽목항 방파제에 반드시 들러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기억하려 했다. 여기서

진도는 여전히 세월호의 기억으로 뜨거운 곳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슬픔의 기억 속에 저절로 숙연해지는 곳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의 Y 선생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일상을 살았던 진도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 겪었을까.

3.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양가적 감정

진도 사람들 역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추모와 안타까움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세월호 사고는 진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진도에서 알게 된 한 학부모와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4월 16일은 진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날이기도 했다. 이들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출항했다. 딸이 수학여행을 떠난 A는 그날 친한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진도 해상에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탄 배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해보라는 전화였다. A는 놀라 딸의 휴대폰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하필 그때 그의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황한 그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서망항으로 향했다. 서망항은 팽목항 바로 아래 있는 항구로, 여객선이 정박하는 팽목항과는 달리, 주로 어선들이 정박하는 곳이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던 A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성님, 진도 아그들이 아니라 외지 아그들이랍니다”는 말에 간신히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A 부부는 그 뒤로 한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다녔다고 하였다. 같은 학생을 둔 부모로서 느꼈던 놀람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마음을 그것 말고는 풀길이 없었던 것이다. 진도 사람들 모두가 이들 같지는 않다고 해도, 섬 지역인 이상 진도에는 이전부터 해상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었으며, 이에 대한 이들의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아픔을 껴안고자 하는 이웃의 태도는 뒤엎힐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진도읍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다. 외부에서 취재하려 몰려든 기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물결 속에, 진도읍의 숙소는 남는 곳이 없었고, 잘 곳을 찾는 이들과 식당을 찾는 이들의 행렬로 한 바탕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어수선함 중에서 진도 사람들 역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잠수사를 하는 B는 해상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잠수 장비를 다 들고 쫓아갔다. 비록 해경이 허락하지 않아 세월호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진도 물길을 아는 잠수사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한가지였다. 이는 진도읍에 사는 사람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나 아주머니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세월호 사고가 있던 4월은 팽목항이나 진도읍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때로 기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도에 거주하는 종교인과 공무원 역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벌였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관계자들은 매일 돌아가며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기원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내가 현지에 들어간 9월에도 이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위해 팽목항에 들르고 있었다. 진도군의 공무원들은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3교대로 배치되어 밤낮 없이 현장에 상주하였다. 본래 업무에 추가된 세월호 지원 업무까지 겹치면서 몇 달간 크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에 대한 기억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이전에는 공터로 남아 있던 진도의 향토문화회관 앞 광장은 세월호 지원물품으로 가득 찼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희생자 가족만이 아니라 진도에 들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내가 진도에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던 9월은 세월호 사고가 있던 때로부터 5달가량 지난 뒤였다. 하루는 나와 친한 C가 저녁에 나를 읍내로 데려갔다. 간단히 진도 민속공연을 보고 난 뒤에 잘 모르는 사람들과 뒤엎혀 회와 술을 마시는 자리로 옮겨갔다. 그제야 나와 함께하던 이들이 자원봉사로 마지막까지 진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자리는 C의 동갑내기 친구들이 계를 묶어 모았던 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그간 노력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려 만든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자신의 환갑을 봉사활동으로 보내고자 가족과 함께한 자원봉사자 가족도 있었다.

이처럼 이들은 단순히 세월호 사고가 난 지역의 주민일 뿐 아니라 아픔을 껴안을 줄 아는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노력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진도의 행사는 세월호와 연관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10월 초 나는 한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다. “작은 음악회”라는 이름의 이 음악회는 2013년 시작하여 진도 서해안에서 일몰로 유명한 세방낙조에서 열렸다. 나는 이 음악회의 뒤풀이를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횃감을 사들고 세방낙조로 향했다. 이 음악회의 제목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자원봉사를 위한 2014 가을 희망 음악회”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한 음악회는 희생된 아이들을 추모하는 시낭송, 진혼살풀이춤, 기다림과 이별을 노래하는 피아노 연주 등으로 희생자들을 기렸다. 뒤풀이 자리는 이날 음악회에 참여한 음악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주관한 한 음악회도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로를 위한 자리였고, 이 행사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진도군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전거를 전달하는 행사도 이어졌다.

이처럼 한편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위한 봉사와 그들에 대한 위무, 그리고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도 사람들이 겪은 세월호의 한 측면이었다면, 다른 한 편에서 이들은 피해자로서 세월호를 겪었다. 세월호는 진도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다. 즉, 세월호 사고로 진도의 이미지는 “슬픔의 섬”이자 “죽음의 섬”이 되었고, 이는 인상의 차원을 넘어 이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이는 진도 사람들이 추모와 위무만으로 여러 달 매달릴 수 없던 가장 큰 이유였다.

세월호 사고 때 탈출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진도의 어민들이었다면, 세월호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또한 진도의 어민들이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진도 해산물에 대한 기피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진도 해산물을 외지 사람들이 먹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다. 사고 지역이 오염됐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단순한 설명부터, 아이들이 어른겨려 먹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있었던 “어묵사건”은 외지에 진도 해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한 사이트에서 단원고 학생의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으며, “친구를 먹었다”고 글을 올려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해산물에 대한 어떤 연상이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진도의 해산물은 실종되

고 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아이들의 유해와 연관되었고, 그렇기에 이는 먹을 수 없는, 그리고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세월호 사고로 덧씌워진 진도의 인상은 진도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어업 외에 상업 부분에서도 생겼다. 진도의 관광객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의 상공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단기적으로 큰 매상을 올렸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자 들르는 사람이 줄며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한 진도에 놀러 올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나는 2014년 7월 말 한참 휴가철에 사전연구차 진도에 들렀다. 당시 숙소가 없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늦게까지 숙소에 자리가 비어있었던 것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추모를 위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진도를 계속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추모객들은 진도에서 잠시 머물 뿐, 잘 해야 식사 한 끼를 먹고 진도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진도에 들려 팽목항에 들리는 것은 잠시의 순례일 뿐이며, 죄스러움과 미안함에 진도 안에서는 놀면서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사고 초기에는 아픔을 껴안는 ‘이웃’으로 이들의 태도가 두드러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들은 계속 현실적 문제와 직면해야 했다. 진도 사람들이 놓인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세월호 사고는 벗어나고 싶은 흔적이 되었고, 극복해야 할 “진도의 위기”라는 인식이 이들에게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1월에 있었던 진도학회의 추계 질례회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진도학회는 “세월호 참사와 진도의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질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진도 주민의 트라우마와 치유, 진도 경제의 위기, 진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한 글이 발표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는 진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월호 사고 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던 김장훈을 진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진도 토산품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보다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고 있다는 인식과도 함께한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언제까지나 계속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도 주민들 역시 지금까지의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9월 26일 진도군민 대책위원회로 자신들을 밝힌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도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인터뷰에 대한 이들의 시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당시 친한 진도분들에게 이 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지나치게 오래 진도체육관에 머물렀고, 이제는 사고가 수습되어 가는 만큼 체육관을 비워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단순히 세월호에 대한 피로도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놓인 현실적인 문제와의 연관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계속해서 진도를 덮고 있는 한 진도는 “슬픔의 섬”에 머물게 되며,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점차 진도에 덮인 그러한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만난 이들은 대책위원회 사람들의 요구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이후 근 5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감수해왔음을 강조하였다. 진도 군민은 끝까지 유가족을 감싸줘야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의 성명은 세월호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진도 사람들이 쫓아내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이는 부적절하

며, 이는 진도 사람들이 그간 쏟아온 노력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세월호 피해자 측과 진도군 측이 상호 공감대를 갖고 피해자 측의 양보를 요청해서 세월호 피해자 측이 자진해서 양보하게끔 유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슬픈 진도”의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동시에, 여전히 아픔을 껴안을 줄 아는 이웃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진도 사람들 안에서 마찰하고 있는 지점이며, 이들의 애매한 위치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이웃으로 호명되어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를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고 있었다.

4. 세월호에 대한 거리감

이런 맥락에서도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다. 이는 연구 초기의 내 경험과 연관되는 지점이다. 나는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연구를 하기 전까지 내 연구에 미칠 악영향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내 연구 소재가 하필 죽음이나 상장례, 무덤 같은 것이었지만, 마을 거주를 허락받거나, 연구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없었으며, 나 역시 진도의 분위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내 연구의 현상이었던 진도의 한 마을로 들어가면서 세월호는 내 주변에서 사라진 것 같았고, 나는 오히려 그 상황에 안심했다. 무엇보다 내가 머물던 마을 안에서 있을 때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어려울 만큼, 내가 있던 곳은 진도였지만, 세월호 이야기는 멀게 느껴졌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거리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이 가면서 수면 아래 잠들어있는 것 같았던 세월호 이야기는 한 번씩 수면 밖으로 올라오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 장에서 밝힌 진도 사람들과 내가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더욱 두드러졌다. 보통 내가 세월호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은 마을 안 보다는 읍내에 나갈 때였고, 마을 안에서 세월호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내 연구 후반에 들어서였다. 마을 안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께 뉴스를 보거나 길을 걸으면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 삶 속에 갑자기 나타난 세월호 이야기를 잠깐씩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었으며, 현재 이들의 관심사에는 벗어난 문제였다.

내가 느꼈던 이러한 거리감은 무엇 때문일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두 가지 배경요인이다. 우선 진도라는 공간과 4월 16일로부터 5달이 지났다는 시점이라는 물리적 요인의 문제이다. 사실 진도는 매우 큰 섬이다. 만약 작은 섬이 사고 지점이 되었다면 그 주변 지역 전부가 사고와 관련될 수밖에 없겠지만, 진도는 너무 크기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차 역시 클 수 있다. 진도는 총 면적인 363km²로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이 섬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3만 명이 넘는다. 또한 내가 있던 마을에서 팽목항까지 거리는 차를 타고 30분 이상이 걸리는 상당히 먼 곳이다.

또한 진도읍에서 팽목항으로 이어지는 길은 애초부터 다른 진도 지역의 길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노란 리본으로 두 지역을 잇는 긴 선은 진도체육관이라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곳과 팽목항이라는 사고 현장을 오가는 배가 정박하는 곳인 두 지역을 연결했다. 이 길을 벗어난 지역에서 노란 리본이 계속 이어지는 길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같은 진도라 하더라도, 팽목항과 진도읍내의 분위기가 다른 지역의 분위기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4월의 뜨거움은 다른 지역에서는 빠르게 식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자가 머물던 마을은 섬마을이나, 땅이 넓은 곳이었다. 특히 진도는 간척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내가 있던 마을 역시 이전에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곳이 다 간척되어 넓은 농토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던 마을은 섬이기보다는 육지 같아 보였다. 진도로 들어오는 길 역시 1985년 초 개통된 진도대교를 넘어 왔기 때문에 배를 탈일도 없었기에 이러한 인상은 더 심했다. 진도가 섬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은 진도에서 제일 높은 첩찰산에 올라서였다. 그 위에 올라서야 멀리 진도 주변의 해안선이 보였고, 그 너머의 먼 바다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있던 마을은 주변을 봐도 산만 보일 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섬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의 문제는 진도 전체의 문제로 계속 심각하게 인식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진도 특정 지역의 문제로 축소되어갔다.

또 다른 배경은 내가 머물렀던 마을의 특성에서 나타난다. 이 마을은 섬이지만 어업 종사자가 없으며,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세월호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어촌이었으며, 진도의 농촌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 진도는 발작물로 대파와 배추를 많이 생산하였고, 논농사도 많이 지었다. 당시 진도 농촌에 시름을 깊게 만든 것은 발작물의 가격 하락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인 풍년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문제였던 것이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 때문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길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대화에서 주된 화제는 떨어진 배추와 대파 값이었고, 수확도 하지 못하고 이를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었지, 빨리 마무리되지 않는 세월호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사고는 이들의 경제적 현실에서도 거리감이 있었다.

오히려 진도의 농촌은 어촌과 달리 세월호 사고로 일부 반사적인 혜택을 얻은 면도 있었다. 최근 진도에서 특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울금 농가의 경우가 그렇다. 진도가 입고 있던 경제적 피해가 강조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도의 울금 상품은 좋은 소비품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정부에서 추석 선물로 진도의 울금 세트를 많이 구매했다는 이야기나, 전국 농협을 다니며 진도 울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진도 울금 건강상품 판매량은 작년에 급증하였으며, 작년 발작물의 가격 하락 속에 진도 농가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울금 농사를 지은 사람들뿐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진도 농협에서도 울금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재고가 모자라 주문을 더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진도 농협은 원래 농협과 울금 판매 계약을 했던 농가 외에도, 울금을 제배한 모든 농가로부터 울금을 수매하였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진도의 피해 양상에서 농촌은 어촌이나 읍내의 상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6개월 이상 지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거리감이 자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세월호 문제가 사고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구조활동도 마무리되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는 충분히 수습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2014년 4월부터 운영되던 진도군의 세월호 전담 공무원들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있었다. 세월호 사고 초기 마을 내 청년들과 아주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 활동을 했으며, 진도 전역이 세월호 일에 빨려 들어갔지만, 내가 마을로 들어간 그 시기는 이들에게 세월호 사고를 마무리짓고 있던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개별 마을들 역시 사고와의 연관성 보다는 그들의 삶이 중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죽음은 세월호 사고에만 있지 않았다. 타인의 죽음은 이들의 생활 공간인 마을 안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칠전리에 들어간 9월 이후, 2014년 말까지 죽은 마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5번이 넘는다. 사실 내가 마을 안에서 나눴던 일상적인 대화에서 세월호 사고보다는 죽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다. 결혼하지 못하고 술병에 죽은 60살이 다 된 노총각, 떡이 먹고 싶다는 딸을 위해 읍으로 경운기를 타고 가던 중에 논두렁에 빠져 돌아가신 할아버지, 암에 걸린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 몇 년을 고생하다 남편이 죽은 뒤 자신도 병에 걸려 죽은 60대 아주머니, 마을에 살다가 병이 들면서 자식들이 외지 요양원에 모시고 채 1년이 되지 못해 돌아가신 할머니 등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가슴 아픈 사연으로 회자되고, 내가 있던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세월호 희생자보다는 먼저 죽은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처럼 세월호에 대한 마무리를 논의하고 있던 진도읍의 분위기에 비하여 내가 있던 마을의 분위기는 보다 차분했고, 세월호와의 거리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진도 안에서는 추모의 공간이 된 팽목항과 다른 마을들은 분리되었다. 비극적이었던 사고의 이야기는 여진처럼 마을에 잔잔히 울릴 뿐이었으며, 진도의 위기 극복이라는 표어 역시 마을 안에 있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는 세월호를 보고 경험하는 양상이 진도 안에서도 다양하며, 진도 안의 지역에 따라 그것이 남기는 여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5. 나오며

진도 사람들에게 세월호는 어떤 사고로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 그간 다섯 달가량 진도에 머물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도 내 세월호의 인식의 바탕과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도 바깥의 사람들이 진도를 “슬픔”과 “애도”의 섬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는 결코 세월호 사고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를 다른 누구보다 뜨겁게 겪었던 당사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진도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동시에, 사고의 여파에 휩쓸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삶의 공간이 일상적인 곳에서 비일상적인 곳으로 뒤바뀌는 경험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넘어, 그것이 일상과의 마찰 속에서 자아내는 갈등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격렬했던 지난 1년의 경험 속에서 이들에게 세월호는 사고로 지나갔고, 이제는 그것

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내가 만난 많은 진도 사람들은 씻김굿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도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뉘 건짐 굿”은 씻김굿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씻고 싶은 것은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진도에 덮인 “슬픔의 섬”으로서의 모습을 함께 씻고자 한다. 굳이 이러한 의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이미지는 많이 씻겨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전라남도 해남군 우수영관광지와 이를 마주보는 진도 녹진관광지에서 있었던 명량대첩축제는 40만 명의 관람객¹⁾이 다녀갔다. 또한 2015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총 6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외국 관람객도 8만 명 이상이 들렀다²⁾.

세월호와 진도의 주변 마을에서 나타났던 거리감은 이제 진도 전역으로 퍼지는 것 같아 보인다. 지난 진도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점에서 진도 주민들은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세월호를 진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있어서 진도 주민들은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동시에 사고에 휘말린 피해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모호한 위치에 있다. 많은 진도 주민들이 세월호로 인한 인상을 씻어내고자 하는 동시에 진도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적어도 관광을 통한 지표로만 본다면 세월호 이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진도에 대한 인상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씻어낸다고 하여 없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세월호의 기억은 진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재앙과도 같았다. 하지만 아픔의 기억은 씻어도 흐려질 뿐 사라지진 않는다. 더구나 진도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아픔을 간직해왔다. 진도는 견훤과 왕건의 공방전이 있던 곳이자, 삼별초가 자리 잡고 여몽연합군에 항쟁했던 곳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명량해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던 조선 후기에는 조일연합군의 동학 소탕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나경수·김덕진·김숙희 등 2014). 이러한 아픈 기억은 지금에 와서는 진도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준다.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진도에 어떤 아픔을 주었던지 진도에 있었던 일이며 진도와는 떨어질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1주기가 넘은 지금, 진도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는 것과 함께 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진도 주민들도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진도 안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움직여야 한다. 나아가 이는 아픔을 함께 한 진도와 안산이 서로의 우정을 이어질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노력이 세월호로 생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년이 지나 들렸던 진도읍에서도 세월호 이야기는 더 사그라들고 있었다. 세월호를 둘러싼 침예한 갈등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진도 사람들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른 해답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줄인다.

1) 뉴시스, “명량대첩축제 40만명 몰려 성황... 영화 흥행 도움,” 2014-10-12.

2) 연합뉴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성료... 외국 관람객 8만 6천 명,” 2015-03-24.

참고문헌

나경수·김덕진·김숙희·송준·이옥희·이용식, 2014, “진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집단기억”, 『진도의 상상의례와 죽음의 집단기억』, 민속원, p. 30~137.